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8월

선교편지 제 80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뉴욕 예일 교회의 의료 선교가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9일 (현지 날짜) 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 되었습니다. 35명의 단기 선교팀이 3번의 비행기를 갈아 타고, 거의 30여 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 피곤한 몸으로 척박한 이곳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밤과 낮이 뒤바뀐 시차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선교팀을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위하여 첫날부터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 그리고 디고스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띠 고등학교와 마띠 교도소가 있는 '마띠 지역', 또한 선교 범위 확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익핏 지역'을 중심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훈련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뉴욕 예일 교회의 선교팀은 '구원 사역 (Salvation Station)'을 우선으로 현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찬양, 복춤, 판토마임등으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으로 가득찬 Youth Group과 CCM에게서 나이 어린 연약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훈 목사님을 통하여, 마침내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원들이 현지인들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할 때에, 서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지 의료진과 함께한 뉴욕 예일 교회의 '의료 사역 (Medical Station)'은 정말 오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속수 무책으로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직접 찾아 와서 치료를 해 주니 그 기쁨과 감사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환경이었지만, 선교팀 모두가 미소를 잃지 않고, 진지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주어서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안경 사역'을 통하여 뿌영던 세상을 밝히 보기 시작하는 현지인의 얼굴을 보는 것도 큰 기쁨 이었고, '치과 사역'을 통하여 오랜동안 괴롭혔던 고통의 덩어리를 빼어내어 안도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약 1,000여명, 마띠 지역에서 약 1,100여명, 마띠 교도소에서 약 500여명, 그리고 익핏 지역에서 약 1,200여명의 현지인들이 이러한 귀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선물 사역과 미용 사역 (Gift Station)'을 통하여 참석한 현지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저분한 머리를 내어 밀며 선교팀의 Youth Group과 같이 멋있는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잘라 달라는 현지 어린이들의 요청이 너무도 많아서 미용 사역팀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뉴욕 예일 교회에서 정성껏 보내 주신 각종 귀한 선교 물품을 현지어로 된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마띠 교도소의 500여명의 재소자들에게는 성경책과 함께 새로 구입한 슬리퍼와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재소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한 빛진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디고스 사역 마지막 날에는 익핏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관전하는 가운데 익핏 고등학교 배구팀과 남, 녀 배구 시합을 했습니다. 익핏 지역은 디고스의 마띠, 띠구만 지역에 이어서 저희의 다음 선교지로 계획하고, 익핏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모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 중에 모두들 하나가 되어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배구 경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즉,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사역 (Sports Ministry)'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만으로는 익핏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배구 경기를 통하여 단번에 선교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뉴욕 예일 교회의 남,녀 배구팀이 모든 경기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곳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하기가 조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구 경기로 인하여 선교사인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만나는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배구 경기가 참으로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에는 배구는 물론 '농구'로 꼭 다시 한번 대결을 하자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피곤한 중에도 매일 이른 아침 QT와 저녁 시간 Journal 을 통하여 말씀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Youth Group과 CCM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타성에 젖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첫 사랑과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 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치 꿈과 같이 모든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었습니다. 중요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이곳 필리핀 민다나오 디고스 지역에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신 뉴욕 예일 선교팀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뒤에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이 척박한 곳에 무수히 뿌려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 받아 주실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